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KIA 희망 사라진 '가을야구'  
 선동열 감독, 팀 조율 실패  
 김용달·조규제 코치 2군행  
 코칭스태프 대거 개편

# 우울한 광주 프로스포츠

시작은 우승후보였다. '50억 대어' 김주찬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한 KIA 타이거즈, 새 사령탑으로 새 진영을 짠 광주 FC. 전력 강화와 탄탄한 경험을 앞세워 가을야구 주인공을 꿈꿨던 두 팀이 악몽의 8월을 맞았다. 떨어진 4강과 1부 리그, 실패를 자인한 선동열 감독이 대대적인 코치진 개편을 단행했다. 광주 FC의 여범규 감독은 취임 1년도 안돼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타격 분권화 실패, KIA의 코치진 대개편  
 KIA는 꺼져가는 4강 불씨를 살리기 위해 '윤석민 마무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선발진이 연달아 부상과 부진으로 무너지면서 윤석민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비판 끝에 물린 선동열 감독은 결국 16일 두산과의 홈경기 7-9 패로 끝난 뒤 인사카드를 빼어 들었다. 코칭스태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무너진 마운드, 조규제 투수 코치와 정희열 배터리 코치가 2군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을 까치' 김정수 투수코치와 김지훈 배터리 코치는 1군에 합류했다. 1투를 지키던 김평호 주루 코치는 3군으로 이동했다. 이번 코치진 개편의 핵심은 타격이다. 선동열 감독은 올 시즌 새로 사단에 합류한 김용달 코치에게 타격 전권을 내줬다. 타순도 타격 코치의 몫이었다.

로운 리더십을 선택했다. 1군 메인 타격 코치로 승격된 홍세완 코치가 그 중심이다. '100타점 유격수' 홍세완 코치는 1978년 생 막내 코치다. 이문보다는 실전, 권위보다는 밀착·소통을 통해 타자들의 공격본능을 깨우겠다는 생각이다.

◇'잔인한 4월'에 발목 잡힌, 여범규 감독  
 광주 FC 여범규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 16일 여 감독은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19라운드를 치른 현재 광주의 성적은 7승5무7패(승점 26). K리그 챌린지 8개 팀 중 3위를 달리고 있지만 선두 경찰(승점 44점), 상주(37점)와 격차가 있다. 1부 재진입을 위해서는 2부 우승을 한 뒤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K리그 울스타팀인 경찰의 독주 속에 1부 리그 진입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여 감독이 사령탑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최만희 감독에 이어 수석코치에서 2대 감독으로 지휘봉을 잡았지만 한 시즌을 채우지 못했다.

19일 경찰과의 홈경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표에 팬들의 아쉬운 목소리는 크다. 여 감독은 5·6·7월 6승3무1패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승률이 75%에 이르는 고공행진이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천덕꾸러기' 루시오를 완벽한 광주선수로 만들어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마음을 붙잡은 김은선·김수범의 든든한 활약 속 공격수 김호남·골키퍼 김지성 등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 신바람 질주를 주도했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간 공백을 빨리 채우지 못하면서 '여범규호'의 도전이 절반의 실패로 끝났다. 시즌 개막부터 계속됐던 무승 행진, '잔인한 4월'의 여파는 중반 무서운 질주에도 만회하기 힘들었다. 휴식기 이후 뜨거운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도 큰 부담이 됐다. 후반기 첫 경기가 열린 8월4일 광주는 안방에서 고양에게 1-2패를 당한 뒤, 지난 11일 안양과의 원정경기에서도 3-3 무승부에 그쳤다. 홈에서 약했던 광주의 매그립지 못했던 8월은 여 감독에게 결정타가 됐다. 끝내 자신의 축구를 다 펼쳐 보이지 못하고 수석코치 그리고 감독으로 맺었던 광주와의 인연을 끝내게 됐다. 광주는 남기일 수석코치 체제로 2013 시즌을 꾸려 나갈 계획이다.



■ 1부 진입 불투명한 광주FC  
 여범규 감독 팀 성적 부진  
 스스로 책임 저 중도하차  
 남기일 수석코치 체제로

## 진흥고 2연패 도전

대통령배 고교야구 8강 진출

진흥고의 대통령배 2연패를 위한 도전이 계속된다. 진흥고가 지난 17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47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장충고에 3-2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도 18일 성남고를 연장승부 치기 끝에 2-1로 물리치며 8강에 합류했다.

'디펜딩 챔피언' 진흥고는 0-1로 뒤진 6회 사사구 3개로 기회를 잡았다. 문진범과 박진두·김도형이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가면서 2사 만루, 천성호의 2타점 적시타로 승부를 2-1로 뒤집었다.

장충고 구본혁에게 1타점 2루타를 허용하면서 2-2가 된 8회말 극적인 반방이 나왔다. 4번 타자 박진두가 우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트리며 3-2 재역전극을 연출했다.

지난 대회 MVP인 진흥고 에이스 허영민은 5회 1사에서 마운드를 물러받아 4.2이닝을 3피안타 1사사구 1실점으로 막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진흥고는 19일 오후 2시 공주고와 준결승 티켓을 놓고 승부를 갖는다. 광주일고도 성남고와의 10회 연장 승부에서 2-1 승리를 가져왔다. 선발 윤중현은 5피안타 1사사구 2탈삼진 1실점(비자책)으로 10이닝을 책임지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광주일고는 19일 오후 6시 부경고와 8강 대결을 갖는다. 경기는 SBS ESPN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소재 엠티파크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2013-2014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나선 김보경(24·카디프시티, 왼쪽)이 홈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소속 마크 노블의 강한 저지를 받고 있다. 카디프시티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2부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5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했는데 이날 리그 개막전에서 웨스트햄에 0-2로 패했다. /연합뉴스

## 김보경, EPL 데뷔전서 호된 신고식

김보경(카디프시티)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완패를 맞으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카디프시티는 18일 영국 런던의 엠티파크에서 열린 2013-2014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홈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0-2로 패했다. 2골만 내준 게 다행일 정도로 웨스트햄의 일방적인 공세였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2부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무려 5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한 카디프시티는 높이와 속도, 몸싸움에서 모두 밀리며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한 김보경은 후반 30분 니키 메이나드와 교체될 때까지 75분을 뛰었지만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김보경은 전반 6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파울을 얻어내 팀의 첫 번째 찬스를 만들었다. 그러나 프리키

커로 나선 피터 윙팅업의 원발 슈팅은 골대를 벗어났다. 5분 뒤 역습 상황에서 김보경은 40여m를 단독 드리블,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강하게 원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볼은 아쉽게 오른쪽 골대 밖으로 향했다.

김보경은 이후에도 넓은 활동량으로 팀 공격 대부분에 관여했지만 웨스트햄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 밀렸고, 역습 상황에서 동료 선수에게 찔려준 회심의 패스는 모두 불발에 그쳤다.

지동원이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을 치른 선덜랜드는 21차례 슈팅을 날리며 슈팅 5차례에 그친 풀럼을 압도했지만, 정작 득점을 하지 못한 채 후반 7분 터진 파피 카사미의 골에 0-1로 분패했다.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구스부르크에 임대됐다가 선덜랜드로 복귀한 지동원은 후반 27분 스테판 세세봉 대신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팀

카디프, 웨스트햄에 0대2패  
 지동원·기성용은 교체 투입

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챔피언십 불탄 원더러스의 이창용은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지만 0-3 패배를 마주해야 했다.

기성용이 뛰는 스완지시티는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로빈 판 페르시와 대니 웰백에 나란히 2골씩을 허용하며 1-4로 대패했다. 기성용은 후반 32분 올 시즌 영입된 호세 카냐스 대신 교체 투입돼 후반전 추가시간까지 16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팀의 패배를 막는 데 보탬을 주지 못했다.

올 시즌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퀸스파크 레인저스(이하 QPR)는 임스위치 타운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45분에 터진 톰 히치콕의 천공같은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윤석영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 볼트 200m 3연패 세계육상선수권...시즌 최고 19초 66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27·자메이카·사진)가 제14회 모스크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남자 200m 3연패를 이뤘다.

볼트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일째 남자 200m 결승전에서 19초66의 시즌 최고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워런 워어(자메이카)가 19초79의 기록으로 준우승했고 커티스 미첼(미국·20초04)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볼트는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와 2011년 대구 대회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남자 200m 3연패를 이룬 선수가 됐다.

볼트 이전까지 남자 200m에서는 켈빈 스미스(미국)가 1983년 헬싱키 대회와 1987년 로마 대회에서 2연패한 것이 최대 연속 우승 기록이었다. 남자 200m에서 세 차례 금메달을 목에 건 것도 볼트가 처음이다. 2009년 베를린 대회에서 100m·200m·400m 계주 정상에 오른 볼트는 또 세계선수권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 100m와 200m를 두 차례나 동시 석권한 선수가 됐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7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볼트는 역대 최다관왕인 미국의 '육상 전설' 칼 루이스(금메달 8개)에게 1개 차이로 다가섰다.

이날 볼트의 기록은 자신이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수립한 세계기록(19초19)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시즌 최고기록(19초73)을 앞당겼지만 역대 기록을 보면 19위에 해당한다.

볼트는 대회를 앞두고 18초대 기록을 작성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으나 앞서 100m 결승을 앞두고 다리에 통증을 느낀 탓에 기록보다는 정상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페이스를 보였다.

준결승에서 20초12로 결승에 오른 볼트는 4번 레인에서 자리를 잡았다. 워어가 8번 레인에, 미첼이 3번 레인에서 볼트의 독주를 저지하려 했지만 이번은 없었다. 여유 있게 스타팅 블록을 박차고 나선 볼트는 늘 그렇듯 곡선 주로를 빠져나갈 때 이미 가장 앞장서서 페이스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 KIA 안치홍 월간 MVP



KIA내야수 안치홍이 밝은안과21 병원이 시상하는 월간 MVP에 선정돼 지난 16일 광주 두산전에 앞서 시상식을 가졌다. 안치홍은 7월 한달 45타수 14안타(타율 0.311) 6득점 9타점을 기록했다. 안치홍은 시상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